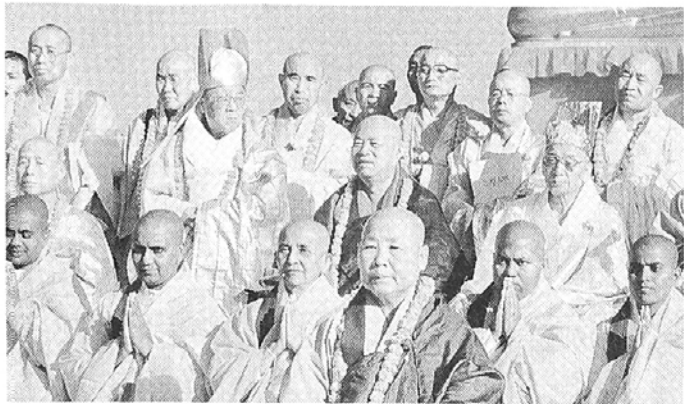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자기를 찾아 보세요



○ 지난 96년 12월 인도 바라나시 녹아원 초전법륜지에서의 서암스님.(동쪽줄 맨 오른쪽)

유지하기 위해 요즘도 나오는 '요미우리' '아사히' 등의 배달도 하고, 방학때는 다 음학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품팔이도 하고, 고물장사도 하고 막노동판 주방장도 하는 등 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폐병에 걸렸지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나를 당시 같이 유학하며 열방에 살던 이종익박사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폐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로 중병이었습니. 그때 제가 그 의사에게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칠 생각이 있느냐" 하면서 2년간 입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어.

하루살이도 힘든데 2년간 입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학 3년을 수료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후에 결사맹장염을 하며 그 죽을 병 다들 뛰어넘었습니다.

일제 징용이 한창이던 때에는 철원 심원사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강사생활을 잠시 했었고,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심계사 등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병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대승사에서는 청안스님, 청담스님, 포산스님, 우봉스님, 성철스님들과 함께 경전하기도 했습니다.

광복후 우리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를 두루 지나며 해산사 선방, 망월사, 청화산 원적사 등지를 떠돌며 화두를 잡고 있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본시 말씀 화(話)자, 머리 두(頭)자입니다. 아무리 짙막한 말도 말이 다 있습니다. 뜻없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젠 뜻이 붙지 않습니다. 일체 사랑분별(思量分別)이 붙지 않는 것이 화두입니다.

가령 화두를 뭐하러 할려고 하나고 물으면 뭐라 할것입니까? 깨닫기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요. 왜 깨달으려 하나고 물으

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괴로우니까 고(苦)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두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살한 8만4천법문은 모두 이야기 즉, 말로써 있습니다. 화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면 방망이로 후려치기도하고, 또 벽력같은 고향을 지르기도 했지요.

그것은 이론으로는 안되니까 그런 비상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것 다 털어내고 너의 소리 한번 해보아라”
서약사 노스님 말씀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만남으로 불제자의 인연이 되었지요

있거든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래 이젠 연필인데 이름이 연필이지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또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이뤄졌는지 알아요?

실제 우리는 단지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 먼저 하나의 존재만 제대로 알아도 우주전체를 알아버립니다.

요새 과학에서도 소입자, 원자, 전자하면서 연구해 들어가는데 그것만 알아도 우주전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하나인데-현재 하나라고 과학은 결론지어 왔는데-하나의 먼저 입자만 봐도 제대로 알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막힐 수 밖에요.

참선이란 말 자체를 몰라도 인간이 진지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다 화두가 되게 마련입니다. 풀 한포기 꽃 한송이를 보아도 저런 풀에 파란물이 묻어 올라오고, 빨간 꽃 봉오리가 올라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요. 누가 염색공장을

려고 모아왔지? 했더니 다들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요즘 너무 험하게 삽니다. 주위를 돌아 보면 얼마든지 오래 오래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스님을 조차 아끼고 절약한다는 생각이 너무 풍족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원적사에 내려와서 원호스님이 머물렀다는 근처 토굴에서 술안을 따먹기도하고 내손으로 직접 공양을 지어 먹으며 오랜동안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수행에만 몰두했더니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렇지, 내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인데 백년산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설사 백년을 산다해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지요.

신행은 여가시간 활용아닌 생활 일부분
“진지하게 살면 저절로 수행자 됩니다”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두는 이론이 아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체에다가 침을 놓은 것입니다.

이론을 따져봐도 안되고,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안되는 꼭 막히는 의문을 푸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망각해 버리고 골똘히 참구해 들어가는 것, 그게 화두입니다.

하지만 화두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는데 역시 말을 통해서 그것을 집착할 수 있지, 말 안하면 집착조차 할 수 없습니. 말을 안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로써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가지고 말에 이르면, 즉,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마치는 것은 불교의 경전 즉 교학이고, 이론에서 이론이 끊어지는데까지 끌어다 놓는것이 화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화두 아닌게 없습니다. 왜 그러하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는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는거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주에는 전부 신기한 것, 모르는 것 뿐입니다. 모르는 것 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멍텅구리다 이 소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냥 멍텅구리로 자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다는게 화두거든요.

예전에 나는 잠시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내게는 영 맞지가 않았습니.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었요. 그래서 모든 직책을 다버리고 경상북도 하북면 원적사로 내려왔어요.

그때 나는 바위에다 흰 장갑 여섯켢레를 놓아가지고 왔어요. 총무원장으로 있다 보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테이프커팅이나 링가 할 때 한번 쓰고는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면장갑 한켢레지만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둔 것이지요. 주위 스님들이 흰장갑 여섯켢레의 사용처를 물길래 "나무할때 쓰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한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진실되게 살려면 안하고는 배가지 못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수행법을 배운게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배가지 못해서 밤중에 집을 나와서 탁 한 판 해보려나 시원하게 자기를 가르쳐 줄 스승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면 저절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듯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내 인생의 참모습을 깊이 참구해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돈 잘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해, 이것이있구나' 하고 딱 깨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독자)

답 불자든 아니든, 가톨릭신도든 기독교도이든 그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에 무슨 상표가 있습니까? 사람따라서 불교도다, 기독교도다 하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구요. 마음 터득하고 마음을 바르고 넓게 쓰면 그대로 돈에 맞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요? 모든게 다 생명이듯이 돈에도 생명이 있지요.

물고 돈니까 돈이라고 했었지만 거기도 생명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좇아 간다고 되는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바르고 넓게 쓰면서 주인공 자리에 딱 맡겨 놓으면 돈이 슬그머니 나를 좇아 옵니다. 돈! 돈! 하고 따라가면 도망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돌리

습니다만 그런 자유인이 아니지요. 가령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사랑이 너무 자원이 되어버렸는데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니까 돌이 같이 죽자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질 않나, 그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돌이 아니게 볼 수 있고 서로가 돌이 아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요 네 자리가 내 자리라 하더라도 버릴 게 없고... 그러니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내다 할 것 없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내 사랑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 그가 나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절로 마음이 기울고 그러다보면 병이 그냥 낫아버리고 그러는 것이 무슨 마인드컨트롤이라구요? 차원이 다른 얘기이지요.

연젠가 중년의 남자가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고개가 삐뚤어진 채 들어갈 줄 아는 것

지 상 상 담
길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 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 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대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선원 대법스님께 물고 답을 물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정리해 줍니다.

보냈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6

면 슬슬 찾아 옵니다.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아서 자꾸 찾아오듯이 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듯이,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뭐든 다 될 수 있듯이 내가 돈이 될 수도 있지요. 시대가 옮겨 하나로 돌아가는데 뭐 는 못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잔뜩 욕심이 생겨서 집착을 한다면 돈이 그만 도깨비 짓을 하지요. 쌓아 놓아서 좋게 보이게 들어 오면 나가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게 마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쌓아 놓아야 부자가 아닙니까. 그거 무겁게 왜 쌓아 놓습니까? 마음 도리를 알면 전부 내 돈인데 말입니다.

마인드컨트롤도 마음공부인가요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 공 부란 이론이 마인드컨트롤과 같은 것이 아닌지요

답 <히태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그런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 음 공부란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그게 자유인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악도 아니고 선도 아 니고 전부를 놓아서 두가지 다 없을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공부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자칫 제멋대로 하는 걸로 알아들

었습니.

그런데 그 분이 정말로 지극하게 삼 배를 하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을 받으면서 생각이 들기를 내같이 모자 라는 사람한테도 저토록 지극하게 절 을 하더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어. "고개는 왜 그렇 소?" 했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그리되었는데 아무리해도 돌아갈 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냐고 대꾸 하게 되는데 마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쌓아 놓아야 부자가 아닙니까. 그거 무겁게 왜 쌓아 놓습니까? 마음 도리를 알면 전부 내 돈인데 말입니다.

이걸 마인드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은 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생 공존하는 법이고 공제 로서 공생하는 법입니다. 본래부터 돌 이 아니니까 내 마음 편하고,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너와 내가 따로 따로 가 아니라 하나로 그냥 주고 받는 것 이지요.

어떤 이들은 날 보고 스님은 왜 돈 이 모일 사이도 없이 자꾸 누굴 주는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준게 아니라 나 편하고,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 을 뿐이란 말입니다.

생활속의 불교 116

찰나찰나 자유를 누리는 현명한 사람

"일체는 본래 공(空)하여 잠시도 쉼 사 이 없이 나무며 돌이가고 있을 뿐이다. 만약 나무지 않는다면 이 몸이나 우주가 형성될 수도 없고 또한 바뀔 수도 없다. 쉼 사이 없이 바둑이 돌이가기에 어느 때 를 꼭 집어 '이것이다' '나이다' 라고 할 수 없어서 공이요, 오직 다투다고 할 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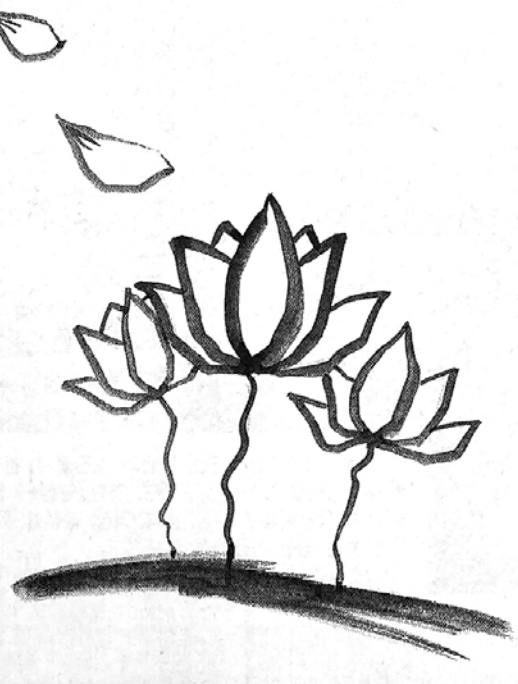
처음과 끝이 따로 없다. 시발점이 종점 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다. 들어가면 나오 고 나오면 들어간다. 무의 세계 유의 세 계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냥 찰나찰나 변하는 이법(理法)만이 여여하다. 찰나로 변한다는 것은 찰나에 죽어간다는 뜻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찰나에 되살아 난다는 뜻도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찰나로 죽어 가는 이치에 매달려 살지만 현명한 사람 은 찰나에 되사는 이치로써 자유롭게 산 다."

우리들은 어떤 사물을 상대할 때에 대 체로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힌다. 사람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며 그것은 언제나 그 것으로서, 이것은 언제나 이것으로서 존

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들의 의식세계 속 에서 한 대상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 찰나찰나 변하고 나무는 이법(理法)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연속되는 실체로서 뚜렷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나 의 지각일뿐 막상 대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어 는 것이라도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은 없 다. 변함없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사실 그것 뿐이다.

'나' 라고 할 때의 나의 실체는 무엇 인가? 육신인가 영혼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의 육신인가 영혼인가, 아니면 그의 성품인가? '나'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찰나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거기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시제(時際)가 없는 지금의 나, 순간의 그가 있을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연속적인, 고정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나의 지각 현상이 이루어져 만들어 낸 개념, 메시지 같은 것일 뿐이다.

영화배우가 본 바르고 연지 찍고 나와 서 대본대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악역 을 맡는 배우를 어느새 미워하게 된다. 선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영화 속에서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부터 악인도 선인도 아니다.

미워할 대상도 좋아할 대상도 아닌 것 이다. 잠시나마 그를 좋아하고 미워했던 것은 대상인 그 배우가 밋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내가 만들어 낸 개념이 그랬을 뿐이다.

우리가 고정된 것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영화 속의 장면같이 영화속의 배우같이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 하루 밤 꿈 속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생사가 꿈이고 꿈 이 생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찰나찰나의 나무이 있을뿐 고정된 실 체가 없다는 뜻이다.

협찬: 故 오영신